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간발표 자료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 『범해선사유고』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전공 박사과정 서소리

2024년 9월 13일

논문의 목차

<p><b>I. 서론</b></p> <p>1. 연구 배경과 목적</p> <p>2. 연구 방법</p> <p>1) 방법1: 인문지식의 디지털 큐레이션 수행과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p> <p>2) 방법2: 조선시대 승려문집 『범해선사유고』를 대상으로 구축 사례 제시</p> <p><b>II.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 전략 수립</b></p> <p>1.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p> <p>2. 지식의 정보화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례 검토</p> <p>3.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과제</p> <p>1)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 설계</p> <p>2)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p> <p>3) 불교기록문화유산 시맨틱 데이터의 스토리텔링</p> <p><b>III.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의 탐색과 자료의 수집</b></p> <p>1. 『범해선사유고』의 서지 정보 조사</p> <p>1) 문집의 저자 범해 각안</p> <p>2) 문집의 간행</p> <p>3) 문집의 체제와 구성</p> <p>2. 『범해선사유고』 수록 시문의 내용 조사</p> <p>1) 승려의 행적</p> <p>2) 사찰의 변천과 불사</p> <p>3) 유물의 교유</p> <p>4) 승려의 유람</p>	<p><b>IV.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데이터 모델 설계</b></p> <p>1. 시맨틱 모델링</p> <p>1) 기록물 정보</p> <p>2) 승려 정보</p> <p>3) 인물 정보</p> <p>4) 단체 정보</p> <p>5) 사찰 정보</p> <p>6) 장소 정보</p> <p>7) 사건 정보</p> <p>8) 사물 정보</p> <p>9) 개념 정보</p> <p>2. 불교문화 지식정보의 시맨틱 데이터 편찬 모델 설계</p> <p>1) 온톨로지 개요</p> <p>2) 클래스(Class) 설계</p> <p>3) 클래스의 속성(Attribute) 설계</p> <p>4) 관계어(Relation) 설계</p> <p>3. 시맨틱 데이터의 스토리텔링 구현 모델</p> <p><b>V. 『범해선사유고』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b></p> <p>1.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환경</p> <p>2. Factual Data 편찬 내용</p> <p>(네트워크의 유형/패턴별로 보일 수 있도록 목차 구성 예정)</p> <p>3.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p> <p>1) 대흥사 승탑원의 승려들</p> <p>2)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p> <p>3) 범해 각안의 제주 유람</p> <p>3) 정약용 가문과 대흥사 승려들의 대를 이어 온 교유</p> <p>5) 범해선사유고를 통해 읽는 불가의 옛 이야기</p> <p><b>VI. 결론</b></p>
---	--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불교기록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식의 아카이브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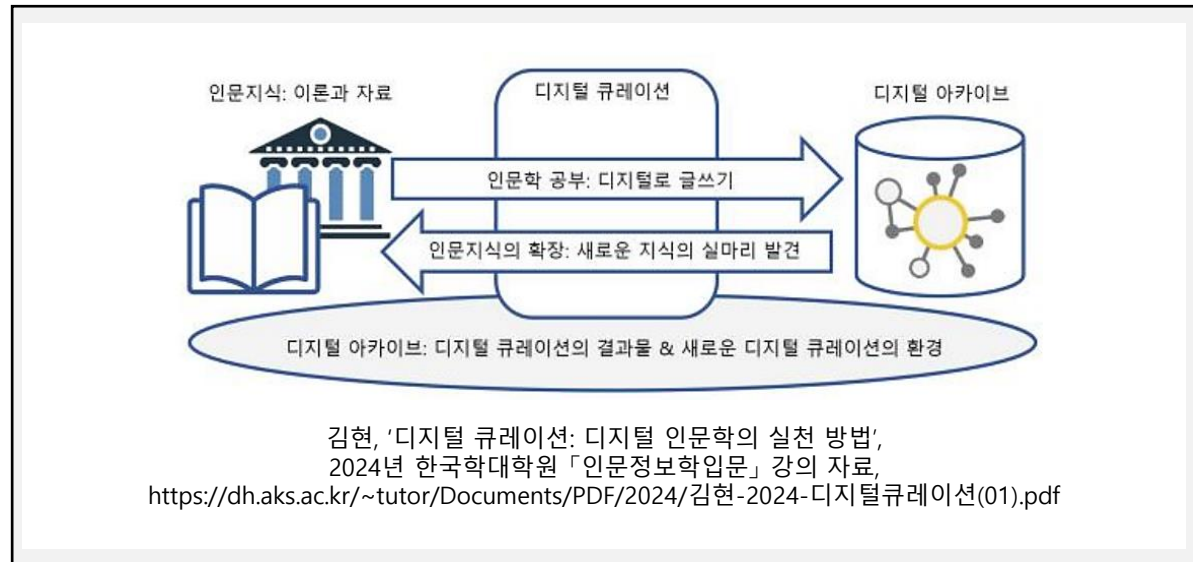
- 한국 불교기록문화유산의 가치: 한국의 불교기록문화유산은 한국 불교가 고유한 전통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과정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불교의 흐름, 사상, 의례, 예술적 성과 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의 한계: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대부분 단순한 디지털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물리적 자료를 스캔하거나 텍스트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등의 작업은 이루어졌으나, 그 안에 담긴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단순 보존의 기능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자료가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접근하거나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연구자나 대중이 활용하기에도 제한적이다.
- 지식의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기존의 디지털화 작업을 넘어, 불교기록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 종교적, 예술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다양한 자료와 연관된 의미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이 디지털 세계에서 소통하고 공유될 수 있는 '지식의 아카이브'로서 기능해야 한다.

### 디지털 아카이브의 화두: 디지털 큐레이션

- 디지털 큐레이션의 중요성: 방대한 아카이빙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큐레이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큐레이션 도입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인문학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불교기록문화유산에서의 디지털 큐레이션 논의의 한계: 그러나 불교기록문화유산의 경우,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논의가 아직 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구체적인 모델이나 사례를 제시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의 필요성: 이에 따라, 불교기록문화유산을 디지털 큐레이션의 방법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불교 문헌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불교기록문화유산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방법1: 인문지식의 디지털 큐레이션 수행과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 디지털 큐레이션: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적 지식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새로운 체계로 엮어서 자신의 이야기로 표현하는 행위”로 요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러한 디지털 큐레이션이 진행되는 연구 환경임과 동시에 큐레이션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인문지식에 관한 데이터’가 공유되는 환경(김현(2024))
- 시맨틱 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대상 세계에 관한 의미론적 맥락(semantic context)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의 형태로 기술되는 특징. 시맨틱 데이터는 관계성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 지식의 맥락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 데이터 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대상 세계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현. 인문 지식의 다층적인 맥락을 네트워크 형태의 데이터로 체계화하는 데 활용
-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디지털 큐레이션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시맨틱 데이터가 축적되는 저장소. 또는 큐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는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는 지식의 아카이브의 구상 모델로 볼 수 있음.





## 연구의 방법

### 방법2: 조선시대 승려문집 『범해선사유고』를 대상으로 구축 사례 제시

#### • 승려문집:

- 승려가 저술한 시문 등의 단편 저술을 모아 편집한 책.
- 한국인이 찬술한 불교 문헌을 망라한 『한국불교전서』에 따르면, 전체 수록 문헌 324종 가운데 99종이 승려문집으로 분류.
- 특정 주제에 관한 저술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독립적인 개별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대 불교 사회의 다채로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
- 승려문집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승려문집을 중형하는 유의미한 지식 요소와 맥락을 중심으로 시문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개별 시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연구 방법이 필요함

#### • 『범해선사유고』:

##### • 다양한 유형의 저술 수록: 전체 366건(시:292건, 산문:74건).

-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문집을 남긴 승려 50% 이상이 100~200여 편의 시를 남겼고, 200여 편 이상의 시를 남긴 승려는 18명으로 확인되는데, 범해는 292편으로 비교적 많은 작품을 남긴 승려.

##### • 범해 각안이라는 인물의 불교사적 위치:

- 범해는 조선 후기 불교사에서 최대 계파를 이루며 발전해 나갔던 청허계 편양파의 법맥을 이어받은 승려.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는 청허 휴정의 의발(衣鉢)이 전해지던 곳으로, 청허계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사세를 확장해 나갔던 곳. 『범해선사유고』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음.

##### • 유관 자료의 풍부함:

- 범해는 『동사열전(東師列傳)』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승려들에 대한 전기를 저술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범해가 속해 있던 '대흥사 계통의 편양파' 승려에 관한 기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특징은 고승전으로서의 『동사열전』이 지니는 한계로 지적되어왔지만, 오히려 범해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범해선사유고』를 보조하여 범해의 주변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
-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에 대해서 사찰 관련 문헌 자료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음. 여기에는 축원문, 사찰계안, 재정관련 문서, 소임관련 문서, 승보안, 중수기, 사적기 등 사찰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고문헌 및 고문서류가 포함됨. 특히 이러한 문헌 자료들은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제공 중.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연계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음.

##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 **검토 대상: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rchives of Buddhist Culture, ABC)**
  - 한국불교의 기록문화를 대표하는 고려대장경을 비롯하여, 한국의 불교 관련 저술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전서』, 국내외 사찰, 기관, 개인이 소장한 불교 문헌자료 등 불교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 대만의 CBETA, 일본의 SAT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학 연구에 필수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로 널리 활용
  - 특히, 본 연구에서 주요 대상으로 다루는 『범해선사유고』의 원자료 이미지,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 서비스를 제공
  - 국내의 대표적인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라 할 수 있는 ABC의 서비스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본 연구의 구체적 대상인 『범해선사유고』를 중심으로 현재 서비스가 지닌 문제점 진단
- **검토 내용:**
  - ABC에서 제공하는 9개 카테고리 서비스별로 서비스 내용과 정보 구축 현황 파악
- **검토 결과 확인한 문제점:**
  - ABC는 방대한 양의 불교 문헌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문헌에 담긴 불교문화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아카이빙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는 문헌의 정보화 중심으로 아카이빙이 이루어지면서, 문헌 속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의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

고전 정보화의 두 가지 모델

	종래의 고전 정보화 모델 As Is Model	고전 정보화의 새 방향 To Be Model
대상	책을 정보화	책 속에 담긴 지식의 정보화
정보화 방법	서문, 목차, 본문 등의 책의 구조를 재현	지식 Unit을 발굴하여 Node화
	‘아날로그 → 디지털’ 매체의 전환에 주력	활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재조직할 수 있게 함(Reuse)
서비스 방법	디지털 도서	특정 주제의 지식정보망
	내용 검색 + 순차적 글 읽기	본문 내용 속에서 문맥 요소를 드러내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지식의 확대를 도모
활용성	Web of Document	Web of Data
	완결된 결과물	융복합적 재활용이 가능
	유관한 지식의 탐색은 독자의 노력으로.....	유관한 지식 세계로 안내하는 지식정보망의 기능

출처: 김현, 「다산 저작 텍스트의 전자정보화를 위한 온톨로지 설계」, 고전자료의  
현대화 연구: 세계사 속의 다산학, 2016, 5쪽.

## 지식의 정보화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례 검토

- **검토 대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ves, Encyclopedic Archives)**
  - 디지털인문학연구소는 학술 및 산업의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문화 데이터 아카이브'의 구현을 목표로 함
  - 디지털인문학연구소가 제안하는 한국문화 데이터 아카이브에 관한 구상은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음
  -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아날로그 세계에서 독립된 두 영역에 존재했던 백과사전 정보와 아카이브 자료가 상호 의미적 관련성을 추구하여 긴밀하게 엮어진 데이터 아카이브. 기존의 아카이브는 문헌이나 자료 등 자원(resources)을 아카이빙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그러한 자원에 관한 지식을 정보화하는 데 중점을 둠
- **검토 내용:**
  - EKC Data Model의 설계 내용 검토
  - EKC Data Model: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개념을 구체적인 데이터 모델로 발전시킨 것.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한 역사적 사실 관계 및 그 사실의 문헌적 근거에 관한 지식을 시맨틱 데이터로 기술하기 위한 온톨로지 스키마
- **검토 결과 확인한 시사점:**
  - 아카이빙 대상의 지식 내용과 이와 관련한 자원을 의미적으로 재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 기술 방안을 제시. 이는 대상의 속성 정보를 나열하는 메타데이터 기술 체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 이러한 아카이빙 과정은 지식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를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선별하고 배치하여 조직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큐레이션 활동.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과정은 디지털 큐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지식의 아카이브는 그러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결과물이 축적되고 공유되는 공간. EKC Data Model은 이러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지식의 편찬 도구

## 지식의 정보화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례 검토

## ■ EKC Data Model 설계 내용 관련 :

- 아카이브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클래스를 6개의 섹션으로 구분, 아카이빙의 목적과 활용성에 맞게 데이터 모델에서 제안하는 여러 클래스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그에 관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
- 사실과 문맥 데이터 : 아카이빙 대상에 관한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의 문맥적 상관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구현하는 기능
- 학술문헌/웹자원 데이터 : '사실과 문맥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식의 학술적 근거를 밝히는 원천자료와 2차적 연구자료, 웹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자원들을 연계하는 기능.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술적 장치
- 스토리텔링 데이터 : 시맨틱 데이터를 재활용(reuse)하여 데이터를 특정 줄거리(storyline)에 따라 큐레이션하여 이야기(storytelling)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

## ■ EKC Data Model 운영 관련 :

- 특정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편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개발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유관 분야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확장
-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동일한 모델로 기술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결과 동일한 체계로 기술된 데이터가 다각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식정보의 네트워크가 더욱 풍부해지고 여러 분야의 데이터가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됨

section	class	description
① 사실과 문맥 데이터 (Fact & Context Data) ⇒ 지식 정보 네트워크	Actor	역사적인 인물/집단적 행위 주체로서의 단체/운영주체로서의 기관 등
	Event	아카이빙 대상 공간 및 시간 범위 안에서 일어난 사건과 발생 시점이 있는 의례/이를 재현하는 행사, 기념제 등
	Place	역사적 배경(사건, 인물)과 관련이 있는 장소, 유물의 소장처
	Architecture	아카이빙 대상 공간 안에 있는 건축물과 조형물
	Clothing	아카이빙 대상 시간 범위의 역사적 인물들이 착용했던 다양한 성격의 복장과 복식 요소들
	Food	아카이빙 대상 의례·행사에서 차려졌던 음식, 식재료와 상차림
	Object	각종 의례/행사의 도구, 그 시대의 문화를 보이는 물품들
	Work	음악, 연희, 무용 등의 공연예술 작품이나 시, 악장가사 등의 문학작품
	Record	문헌, 사진, 도면, 금석문 등 지식 데이터의 원천 자료가 되는 기록물
	Concept	제도, 의례, 풍속 등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개념
	Heritage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등록 정보
② 학술문헌/웹자원 데이터 (Reference Data) ⇒ 학술정보/관련자원 연계	Bibliography	학술적 연구 자료의 목록, 서지사항과 원문/서지사항 URL
	WebResource	월드 와이드 웹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참고자료
	Text	설명의 증거 기능을 하는 문헌상의 텍스트
③ 스토리텔링 데이터 (Storytelling Data) ⇒ 스토리텔링	Story	이야기(Storytelling) 전달을 목적으로 아카이브 속의 노드를 선택하고 설명한 데이터
④ 공간 데이터 (Spatial Data) ⇒ 전자지도	Space	GPS 상에서 지리적 위치를 시각화하는 데이터
⑤ 시간 데이터 (Temporal Data) ⇒ 전자연표	TimeSpan	Event 시점/시간 범위를 전자연표상에서 시각화하는 데이터
⑥ 메타버스 어셋 (Metaverse Asset) ⇒ 메타버스 제작/활용	3dModel	건물, 물품, 의복, 음식 등의 3차원 형상
	3dScene	3D 모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3D 공간
	VR	실사 영상 기반으로 제작한 3D 공간

##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과제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 전략	불교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분야의 향후 과제	본 연구의 구체적 과제
지식의 축적·소통을 위한 데이터 모델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 설계	『범해선사유고』의 사례로 시맨틱 데이터 모델 설계
지식의 정보망 구현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범해선사유고』에 관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스토리텔링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시맨틱 데이터 스토리텔링	『범해선사유고』의 시맨틱 데이터 스토리텔링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는 큐레이션 기반의 아카이빙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한 과제**

- 1)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축적과 소통을 위한 기술 체계 설계
- 2)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정보망을 구현할 수 있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 3) 지식의 아카이브의 기능적 측면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지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시맨틱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스토리텔링

**1)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 설계:**

- 불교기록문화유산에 담긴 지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하기 위한 기술 체계 마련
- 기록물에 담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불교문화, 역사, 사회 등의 면면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적인 관계성에 기반하여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어야 함
- 이런 점에서, 지식의 아카이브 구현을 위하여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일은, 사실상 불교문화에 관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즉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 설계의 주안점은 다양한 유형의 불교기록문화유산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한국불교문화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

**2)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

-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기술 체계에 따라서 개별 기록물에 관한 지식을 시맨틱 데이터로 기술하는 일
- 불교 문헌의 사실과 문헌에 관한 정보로 이루어진 지식의 네트워크 구현. 지식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다양한 자원의 연계

**3) 불교기록문화유산의 시맨틱 데이터 스토리텔링:**

- 시맨틱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데이터의 스토리텔링 수행
-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복잡한 지식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활용

## 『범해선사유고』의 서지 정보 조사

- **문집의 저자 범해 각안(梵海覺岸, 1820-1896)**

- 조선 후기 불교계의 중흥을 이끌었던 해남 대흥사에서 평생을 주석했던 승려
- 대흥사가 불교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청허 휴정의 의발이 대흥사에 전해지게 된 것이 계기. 청허 휴정에서 이어진 해동의 선교양종의 근본 사원이 되면서, 대흥사는 많은 승려들이 귀의하게 되었고 종풍이 번성하게 되었다.
- 특히 범해 각안이 생존했던 19세기의 대흥사는 안으로는 편양계를 중심으로 한 법맥을 공고히 하고 선과 교를 아우르는 강학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밖으로는 해남 주변의 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유학에 관한 지식과 교유의 외연도 넓혀갔다.
- 범해 각안은 이러한 흐름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승려로서, 그의 저술에는 이러한 당대 사회의 면면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 **문집의 간행 경위**

- 현재 범해 각안의 문집은 1921년 해남 대흥사에서 『범해선사유고』라는 이름으로 발행한 간본이 전해진다. 문집은 상하권의 4권 2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상권은 『범해선사시집(梵海禪師詩集)』 2권과 『범해유집보유(梵海詩集補遺)』를 합철하여 1책으로 구성하였으며, 하권은 『범해선사문집(梵海禪師文集)』 2권을 1책으로 구성하였다.
- 『범해선사유고』의 편찬 경위에 관한 내용은 문집에 수록된 서문과 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기	내용	출전
1896년 12월 26일	범해각안 입적	행장
1916년 겨울	금명보정이 두륜산 장춘강원에서 머무는 중 범해각안의 법손 인월, 완월에게 문집 편찬을 의뢰받음	발문
1917년 봄	금명보정이 염재거사 송태회에게 문집의 서문을 요청함	발문
1917년 봄	금명보정이 주완섭에게 문집의 등사를 명함	발문
1917년 3월	율암찬의가 범해각안 행장을 저술함	행장
1917년 늦봄	송태회가 길상산방에서 문집의 서문을 저술함	서문
1917년 4월 육불일	금명보정이 문집의 발문을 저술함	발문

『범해선사유고』의 서지 정보 조사

- 문집의 편차와 수록 저술의 현황
  - 『범해선사유고』는 『범해선사시집』(상권)과 『범해선사문집』(하권) 으로 구성. 총 366편의 시문, 서문 1편, 발문 1편, 행장 1편
  - 『범해선사시집』: 292편의 시 수록, 권두에 송태회가 저술한 서문 수록(「梵海詩稿敘」)
  - 『범해선사문집』: 74편의 산문 수록, 권말에 율암 찬의가 저술한 행장 수록(「梵海禪師行狀」), 금명 보정이 저술한 발문 수록(「梵海禪師詩集後跋」)

구분	권차	장	편명
시집	(서문)		梵海詩稿敘
	권1 (102)		次石屋和尚山居詩, 送金道巖, 次趙信庵, 次金湖隱, 挽草衣禪師, 十一庵號, 和金錦史, 送興雲禪伯, 挽孫座首, -贈俊圓, 次寬禪, 和富听, 次在演, 贈弼喧, 戒仁學, 送在煥, 次泰演, 送典毅, 次海彥, 答善裕, 賀處耘, 別應玄, 贈永淳, 贈英俊, 答進學, 贈璟華, 贈永贊, 和鄭痴隱, 與崔林姜共和, 與崔林姜共次羅云清潭韻, 到雙溪, 溪寺興感, 遊漱玉溪, 題龍丘師詩軸, 題觀音窟, 院湖觀稅船, 芭蕉花, 送蔡霽巖, 超瘡, 次姜梅塢韻, 挽瑞律母趙氏, 挽安山林, 訓正己, 挽李鶴峯, 挽金護軍, 次七星庵韻, 越瀛海, 姜龍雲求詩, 三姓穴, 次戀宸閣韻, 大靜懷古, 次旌義東軒韻, 次戀北亭金清陰先生韻, 與戒定開士, 過弓裔城, 次天保樓韻, 次花巖寺韻, 一爐香室, 紫薇花, 謹次申白坡先生贈韻, 白坡松坡兩老共上北庵拈韻, 挽仁湖金斯人, 客隱跡, 自嘆聯句, 和黃礪溪, 次金玉山進士, 結制獨坐, 題紙船, 夜渡碧波, 送金構庵, 題雙溪, 次誕報廟板上韻, 次曹溪庵板上韻, 募緣行, 府使白兼山册室白茶泉許小痴共遊溪寺, 贈奇衍上人, 和李松坡, 降仙臺, 憶東野, 寄廣信, 尾扇, 與善愚, 題隱跡寺, 追挽影山禪伯, 木念珠頌, 陪繡衣沈蘭沼, 次對月樓韻, 與梁栢塢共和, 次觀湖齋韻, 挽應化講主, 次栢塢齋韻, 贈奇雲上人, 贈圓海講伯, 贈寶鼎上人, 端陽, 送法海長老歸昇州, 贈清峰長老, 挽無爲兄, 九曲, 九臺, 贈奇正上人, 上見性庵謹次李御使敦相韻
	권2 (74)		木樨子千念佛, 和漢陽安期仙, 無說泉, 贈奉和, 贈在玄, 贈謹學, 與贊敏小師, 贈東一上人, 贈翼雲上人, 次雲圃李詞伯韻, 居赤蓮庵, 挽李松坡, 映山花, 和曹詞伯韻, 題快年閣, 和尹松下, 瀛洲十景, 頭輪十景, 贈曹仁祚, 贈處鑑上人, 奉別劉韋溪, 贈在允上人, 別應河, 題梵海堂, 廉客張裨將金學官共和, 法翰上人, 讚儀上人, 說法華經, 讀維摩經, 訪北庵, 贈天祐, 次謹煥軸韻, 次謹浩軸韻, 次尹海阜韻, 次崔石痴韻, 和水相李公容觀韻, 唱和水相圭泰南庵拈韻, 奉和水相韻, 次題雲潭長老潭韻, 贈洪波上人, 次崔石痴, 贈錫幸上人, 唱和閔公, 遺敬元, 遺仁和, 送仁正驅烏沙彌, 與順和行脚, 次金晚翠贈韻, 謹次朴蘆河贈韻, 寄千雅士, 挽曹萬戶, 贈晦光長老, 挽月如禪伯, 挽青霞長老, 別林南阜田松村, 快年閣庭映山紅, 謹次曹視察使遊山韻, 贈朴梅溪, 和趙杏綻尹白隱月夜韻, 和崔裕齋金小雲金米舫, 思行英, 次題延淳軸, 次泰愚上人韻, 贈志運上人, 和金松南霖雨韻, 送綺紋師, 再居古庵, 達朴處士
		고풍장편(6)	三衣歌, 得瓜興感, 貫碑浮屠, 人物歌, 山水歌, 茶歌
		오언절구(19)	立玩虎祖師碑, 興感, 講席, 院湖大風, 丙寅怨, 濟州大靜郡桃源里途中, 南原關王廟, 廣寒樓, 秋日獨坐, 憶銀海寺白與庵武治上人, 宿莞島院洞, 珍島郡鳥島, 玉島, 石南島, 秋牧丹, 藤草, 黃橘, 閱仙巖寺大覺國師集, 述懷回文
		오언율시(19)	贈許萬澤, 枕溪樓, 松廣寺臨鏡堂, 草衣茶, 學箴十韻, 南臺秋觀, 送下台島尹成文, 贈順成上人歸釋王寺, 暮歸, 建除體, 八音體, 映山紅, 牧丹花, 玉梅花, 夜鳥鳴, 挽日庵, 再入寶運閣, 題眞筵, 甫吉島書巖
	범해 유집 보유 (116)	칠언절구 (56)	讀史紀, 過首露王陵, 通度寺慈藏窟金蛙, 七夕, 漁父, 頭輪峰, 題風, 井魚, 嘲金汝鍾, 太平花, 鳳仙花, 錦囊花, 清虛集, 諫臣論, 見家語失弓, 家鷄, 山雉, 拄杖子, 別桐裏寺弼演上人, 挽日庵雜咏, 和金乃烈, 秋分, 和金雲翁先生, 雪中行, 南彌勒雜詠, 江東沙亭, 花塢雜咏, 和朴愚谷, 宿洪海店, 贈尚州枕山李處士, 入濟州, 浴涯月鎮明泉, 大靜山房窟寺, 金剛山摩訶衍, 京畿德寺庸庵和尚, 白蓮社萬景樓, 共申白坡先生登北臺, 宿金島, 處暑早雨, 示金龍, 題草衣長老畫十八羅漢圖, 題章教二經合部, 題四十二經科評, 題遺教經科評, 題警策文科評, 三經合部科記回向, 題許小痴性石圖, 挽錦月和尚, 挽南坡和尚, 和張藍史, 贈在允沙彌四威儀頌, 足映山紅生地黃落句, 過慶尙鎮海, 河東七佛菴, 恩津觀燭, 綾州運舟洞
		칠언율시 (22)	頭輪山月歌, 珍島峯火, 萱草, 送道岬寺大雲上人, 長興寶林寺, 頭輪山碑跋, 送珍島金龍設, 謹次挽日庵艸衣師韻, 拱北臺, 鎮南臺, 海南倅李東樓冊室丁維桑登北庵共和, 挽鐵船和尚, 美黃寺上岫菴, 成道菴, 晋州矗石樓, 渡濟州放船, 濟州觀德亭, 稷山弘慶寺, 全州甄賞城, 同福勿染亭, 南固寺萬景臺, 康津白蓮社
	권1 (32)		雌雄鐘記, 隱跡庵山神閣創建記, 花供養記, 清海觀音庵山神閣創建記, 沃州雙溪寺重脩記, 老人星記, 大菴寺志畧記, 千佛造成畧記, 受苦薩戒牒跋, 四十二章經評科跋, 茶藥說, 鵲巢水田說, 逐虻峙說, 美黃靈虛化行說, 順天朱黔突大同色說, 能見難思辨, 阿育王塔辨, 曲直辨, 五種決疑論, 大乘戒法門, 茶具銘, 行藏銘, 竹篋銘, 木鐸銘, 拄杖銘, 念珠銘, 影山知識贊, 白坡律師贊, 龍雲大師贊, 無爲眞身贊, 自贊, 丙寅表忠祠祝
	권2 (42)		聞香閣上樑文, 頭輪山眞佛魔法堂上梁文, 頭輪山新建靈山殿上梁文, 頭輪山十王殿上梁文, 頭輪山上院庵新建七星殿上梁文, 禪門謨語序, 頭輪堂詩集序, 普濟會中學禪案序, 僧族譜序, 諸書名數序, 徐氏同族契案序, 仁基喪布契案序, 東詩漫選序, 通鑑私記序, 受苦薩戒契案序, 古眞佛四孟佛糧案序, 眞佛庵志序, 潤字契案序, 自說慧字契案序, 靈山殿初建施主案序, 寂光殿燈燭契案序, 佛祖源流序, 康津高聲庵中鐘施主案序, 長城白羊山清流洞中鐘施主案序, 大菴寺無量會募緣疏, 西山大師影閣茶禮募緣疏, 務安法泉寺袈裟及千燈募緣疏, 礪山彌勒寺重修募緣疏, 無量會重修募緣疏, 寄一虛居士書, 答朴蘆河書, 上青陽倅, 上長洲府使, 上丹陽丁使君, 上申承旨書, 上申承旨書, 上趙判書, 寄鐵鶴師書, 慰渾虛師書, 答許先達書, 上申叅判書, 祭影閣茶禮文
	(행장)		梵海禪師行狀
	(후발)		梵海禪師詩集後跋



## 『범해선사유고』 수록 시문의 내용 조사

## ▪ 『범해선사유고』의 주요 내용:

- **승려의 행적** : 『범해선사유고』에 수록된 시문에는 범해 각안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여러 승려들의 단편적인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시문에 기록된 승려의 행적(출가, 수계, 수행, 불사, 입적, 범맥 등)을 파악하고, 이러한 맥락과 관계된 유관 행적들을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고 승려의 행적과 관련된 『범해선사유고』 외의 문헌 자료와 유물 등의 문화유산 정보를 조사하였다.
- **사찰의 변천과 불사** :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 각안이 주석했던 대흥사(대둔사)를 비롯하여 해남과 주변 지역 사찰의 내력과 여러 불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찰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해왔는지,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사찰의 변천과 불사를 중심으로 이를 근거하는 자료로서 문집의 시문이 재구성될 수 있도록, 문집에 등장하는 사찰의 정보를 조사하고 관련된 문헌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재 사찰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의 정보가 보여질 수 있도록 사찰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조사하였다.
- **유불의 교유** :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 각안이 유교 문인들과 주고 받은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시문은 범해가 불교계 뿐만 아니라 유교 문인들과도 깊이 교유한 정황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문을 매개로 한 유불 교유의 맥락이 보여질 수 있도록 문집에 등장하는 인물을 식별하고, 『범해선사유고』 외의 유불 교유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다른 문헌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 **승려의 유람** :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 각안이 3차례에 걸쳐 전국을 유람하며 남긴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유람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시문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람과 관련된 사건을 정리하고 각 유람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정보와 이와 관계된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다.

- 위 내용을 중심으로 시문에 관한 사실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문맥을 보일 수 있는 지식 정보와 자료 조사
- 특히 이러한 문맥을 중심으로 기존의 아카이빙 자원들을 참조하여 볼 수 있도록 유관 자원 수집
- ‘범해선사유고에 관한 지식의 아카이브’는 이와 같은 지식의 탐색과 자원 수집의 내용을 시맨틱 데이터로 표현한 결과물



## 『범해선사유고』 수록 시문의 내용 조사

## ■ 예시) 「천불조성약기(千佛造成畧記)」

가경嘉慶 16년(1811, 순조 11) 신미년 2월 실화失火로 지장전地藏殿・팔해당八解堂・용화전龍華殿・적조당寂照堂・천불전千佛殿・대장전大藏殿・약사전藥師殿・가허루駕虛樓가 하룻밤 사이에 다 불에 타서, 본사의 완호玩虎 대사가 스스로 화주가 되어 차례로 세웠다.

정축년(1817, 순조 17)에 상경하여 주선하고 경주 기림사祇林寺로 내려가서 8월 7일에 처음으로 신중단에 마지摩詣를 올리고 비로소 화원畵員을 임명하니 경산京山의 화원이 여덟 명이었다. 비로소 불사를 시작하여 거의 석 달에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 상서로운 빛이 나타난 것이 세 번이었다. 10월 18일 첫 번째로 삼백삼십삼불을 점안點眼하니 경산의 화원이 아홉 명이었다. 19일 두 번째로 삼백삼십삼불을 점안하니 영남의 화원이 스물네 명이었다. 20일 세 번째로 삼백삼십삼불을 점안하니 전라도의 화원이 열한 명이었다.

11월 16일 배로 부처님을 모셨는데, 700위는 큰 배에 300위는 작은 배에 실었다. 4·5일 바람을 기다려 21일에 배를 놓았으나, 동래東萊 오륙도에 이르러 큰 바람을 만나 작은 배는 해안가를 따라 되돌아오고, 큰 배는 표류하여 일본국 장기도長崎島 축전주筵前洲까지 갔으니 바로 11월 29일이었다.

무인년(1818, 순조 18) 6월 17일에 일본에서 배를 출발하여 27일에 동래 부산진 앞바다에 정박하자 동래 부사가 정황을 물었다. 7월 5일 밤에 출발하여 6일에 내관萊館을 지나고 10일에는 완도 원동院洞 대진강大津江에 도착하였다. 15일에 절에 올라 8월 15일 천불의 존상尊相을 봉안하였다. 일본으로 표류한 부처님은 어깨 위에 '일미' 자를 써서 후인들에게 보였다.

대흥사 천불전의 천불상 조성 관련 자료 현황

자료 이미지	자료명 / 시기 / 소장처	온라인 아카이빙 현황
	『범해선사유고』 수록 「천불조성약기」	ABC > 원자료 이미지, 원문 및 번역문 텍스트 확인
	『동사열전(東師列傳)』 수록 「완호강사전(玩虎講師傳)」	ABC > 원자료 이미지, 원문 및 번역문 텍스트 확인
	『일본표해록(日本漂海錄)』 / 1821년 /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ABC > 원자료 이미지, 원문 및 번역문 텍스트 확인
	〈조선표객도(朝鮮漂客圖)〉 / 1838년 / 개인 소장	아카이빙 자원 없음
	『매옥서궐(梅屋書廬)』 수록 〈다산이 호의에게 보낸 편지〉 / 1818년 3월 9일(발신일) /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아카이빙 자원 없음
	『매옥서궐(梅屋書廬)』 수록 〈다산이 완호에게 보낸 편지〉 / 1818년 8월 11일(발신일) /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아카이빙 자원 없음
	『천불조성록(千佛造成錄)』 / 1817년 / 용흥사 소장	ABC > 원자료 이미지, 원문 및 번역문 텍스트 확인
	대흥사 천불전 천불상(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 1813년 / 대흥사 소장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 시맨틱 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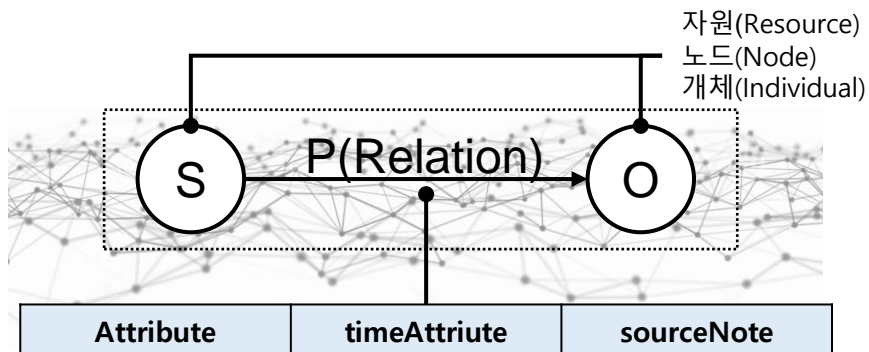
- **시맨틱 모델링(Semantic Modeling) :**
  - 시맨틱 모델링이란 정보화의 대상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드러내기 위해 그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론적 맥락(Semantic Context)을 정의하는 일
- 『범해선사유고』에 관한 지식과 자원의 세계가 어떠한 성격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시문에 관한 지식요소를 발굴하고, 지식요소 간의 의미관계를 정의
- 지식요소 발굴은 시문에서 중점적으로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중심 소재를 비롯하여, 시문의 저술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 등과 같은 시문의 맥락을 구성하는 인물, 장소, 문헌, 사물, 사건, 개념 등의 정보 요소들을 탐색하고 식별하는 과정. 지식요소는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정보 요소. 향후에 이어질 시문에 관한 지식을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기초단계
- 기존의 시문의 내용 해설을 텍스트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을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식요소 발굴은 단순히 텍스트 내의 어휘를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아니며, 오히려 텍스트가 담아내지 못한 맥락을 탐색하고 그 맥락이 데이터로 기술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들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지식요소는 또한 시문의 맥락을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유용
- 이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지식요소를 9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의 지식요소별로 의미 관계를 정의하는 작업 진행

## 지식요소 범주

- ① 기록물 정보
- ② 승려 정보
- ③ 인물정보
- ④ 단체 정보
- ⑤ 사찰 정보
- ⑥ 장소 정보
- ⑦ 사건 정보
- ⑧ 사물 정보
- ⑨ 개념 정보

## 불교문화 지식정보의 시맨틱 데이터 편찬 모델 설계

- 시맨틱 모델링의 내용을 토대로 『범해선사유고』에 담긴 한국 불교문화의 의미적 맥락을 시맨틱 데이터로 표현하기 위한 온톨로지를 설계
- EBC(Encvyes of Buddhist Culture, 불교문화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 EKC Data Model이 개념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vyes)의 구상을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아카이브 구상에도 적용
  -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단순한 데이터 나열에 그치지 않고, 지식과 그것이 근거하는 다양한 자원들이 의미론적인 맥락에서 상호 연결된 지식의 아카이브
  - 불교기록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의 정보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교문화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의 아카이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문화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라는 의미의 EBC라고 명명
- OWL의 온톨로지 기술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기존의 온톨로지 기술 체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링크 데이터 기술의 영역을 보완



## 클래스 목록

Section	Class	Description	
불교문화 문맥 정보	Record	URI	http://dh.aks.ac.kr/ontology/ebc#Record
		Comment	기록물
	Monk	URI	http://dh.aks.ac.kr/ontology/ebc#Monk
		Comment	승려
	Pers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Person
		Comment	인물
	Group	URI	http://dh.aks.ac.kr/ontology/ebc#Group
		Comment	단체
	Templ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Temple
		Comment	사찰
	Plac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Place
		Comment	장소
불교문화 자원연계 정보	Event	URI	http://dh.aks.ac.kr/ontology/ebc#Event
		Comment	사건
	Object	URI	http://dh.aks.ac.kr/ontology/ebc#Object
		Comment	사물
	Concept	URI	http://dh.aks.ac.kr/ontology/ebc#Concept
		Comment	개념
	Heritag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Heritage
		Comment	문화유산
	WebResource	URI	http://dh.aks.ac.kr/ontology/ebc#WebResource
		Comment	웹자원
불교문화 스토리텔링	Buddhist Collection	URI	http://dh.aks.ac.kr/ontology/ebc#BuddhistCollection
		Comment	불교문헌목록
	Story	URI	http://dh.aks.ac.kr/ontology/ebc#Story
		Comment	스토리

## 불교문화 지식정보의 시맨틱 데이터 편찬 모델 설계

## 관계어 목록

relation	label	domain	range
isAbout	A는 B에 관한 것이다	Record, Object	Any
depicts	A는 B를 묘사한다	Record, Object	Any
mentions	A는 B를 언급한다	Record	Any
hasWife	A의 부인은 B이다	Person	Person
hasSon	A의 아들은 B이다	Person	Person, Monk
hasAdoptedSon	A의 양자는 B이다	Person	Person
hasGrandSon	A의 손자는 B이다	Person	Person
hasDaughter	A의 딸은 B이다	Person	Person
hasBrother	A의 형제는 B이다	Person	Person
hasNephew	A의 조카는 B이다	Person	Person
hasDescendant	A의 후손은 B이다	Person	Person
hasInscription	A의 금석문은 B이다	Object	Record
hasCalligrapher	A의 서자(書者)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TitleCalligrapher	A의 전액의 서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Inscriber	A의 각자(刻者)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Writer	A의 저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Editor	A의 편집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Scribe	A의 필사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Creator	A의 제작자는 B이다	Record, Object	Person, Monk
hasSender	A의 발신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Recipient	A의 수신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hasCarrier	A의 전달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issuer	A의 발급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recipient	A의 수취자는 B이다	Record	Person, Monk

relation	label	domain	range
isBeneficentMasterOf	A는 B의 은사이다	Monk	Monk
isDharmaMasterOf	A는 B의 법사이다	Monk	Monk
isBodhisattvaPreceptorOf	A는 B의 보살계사이다	Monk	Monk
isPreceptorOf	A는 B의 계사이다	Monk	Monk
isSeonMasterOf	A는 B의 선스승이다	Monk	Monk
hasDharmaHeir	A의 법맥을 이어받은 후손은 B이다	Monk	Monk
hasSuccessor	A의 계승자는 B이다	Monk	Monk
hasDisciple	A의 제자는 B이다	Monk	Monk
isTeacherOf	A는 B의 선생님이다	Person, Monk	Person, Monk
isAssumedAs	A는 B로 추정된다	Monk	Monk
staysAt	A는 B에 주석했다	Monk	Temple
ordinationPlace	A의 수계지는 B이다	Monk	Temple
pravrajyaPlace	A의 출가지는 B이다	Monk	Temple
retreatPlace	A의 안거지는 B이다	Monk	Temple
deathPlace	A의 사망지(입적지)는 B이다	Person, Monk	Place, Temple
studyPlace	A의 강학처는 B이다	Monk	Temple
hasBranchTemple	A의 말사는 B이다	Temple	Temple
hasHermitage	A의 암자는 B이다	Temple	Temple
hasFounder	A의 설립자는 B이다	Place, Temple	Person, Monk
hasRenovator	A의 중건자는 B이다	Place, Temple	Person, Monk
isPredecessorOf	A는 B의 전신이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hasOtherName	A의 다른 이름은 B이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NamedAfter	A는 B를 따라 이름지었다	Place, Temple	Concept
isNear	A는 B에 가까이 있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NorthOf	A는 B의 북쪽에 있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SouthOf	A는 B의 남쪽에 있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SiteOf	A는 B의 터이다	Place, Temple	Place, Temple
isLocatedIn	A는 B에 위치한다	Place, Temple, Object	Place, Temple
isCollectionOf	A는 B의 시문집이다	Record	Person, Monk

relation	label	domain	range
isCommentaryOf	A는 B의 주석서이다	Record	Record
hasVersion	A의 판본은 B이다	Record	Record
hasSource	A의 출처는 B이다	Record, Concept	Record
isReplyTo	A는 B의 화답시이다	Record	Record
isWrittenFor	A는 B를 위해 지어졌다	Record	Person, Monk
rhymeWith	A는 B의 차운시이다	Record	Record
hasContributor	A의 기여자는 B이다	Record, Object, Temple, Event	Person, Monk
hasMember	A의 구성원은 B이다	Group	Person, Monk
isSteleOf	A는 B의 비이다	Object	Place, Temple, Person, Monk
isStupaOf	A는 B의 숭탑이다	Object	Monk
enshrines	A는 B를 제향한다	Place, Temple	Person, Monk
creationPlace	A의 제작장소는 B이다	Record, Object	Place, Temple
provenance	A의 출처지는 B이다	Object	Place, Temple
currentLocation	A의 현위치지는 B이다	Record, Object	Place, Temple
livesIn	A는 B에 거주한다	Person, Monk	Place
hasDonor	시주사건 A에서 시주자는 B이다	Event	Place, Person
donorAffiliation	시주사건 A에서 시주자의 소속은 B이다	Event	Place, Temple
donorPosition	시주사건 A에서 시주자의 관직은 B이다	Event	Concept
donation	시주사건 A에서 시주물은 B이다	Event	Object
hasAppointee	임명사건 A에서 피임명자는 B이다	Event	Person, Monk
appointeeAffiliation	임명사건 A에서 임명자의 소속은 B이다	Event	Temple
appointeePosition	임명사건 A에서 임명자의 관직은 B이다	Event	Concept
hasAdministrator	사건 A의 주관자는 B이다	Event	Person, Monk

relation	label	domain	range
isHeldFor	A는 B를 위해 개최된다	Event	Person, Monk
isHeldAt	A는 B에서 개최되었다	Event	Place, Temple
happendAt	A는 B에서 일어난다	Event	Place, Temple
hasParticipant	A의 참석자는 B이다	Event	Person, Monk
visitPlace	유람 A의 방문지는 B이다	Event	Place, Temple
visitWith	유람 A의 동행자는 B이다	Event	Person, Monk
departure	유람 A의 출발지는 B이다	Event	Place, Temple
destination	유람 A의 도착지는 B이다	Event	Place, Temple
isPreviousTo	A의 다음 순서는 B이다	Event	Event
servesAs	A는 관직 B를 역임했다	Person, Monk	Concept
isPostOf	A는 B의 관직이다	Concept	Place, Temple
hasTitle	A의 호칭은 B이다	Person, Monk	Concept
isDesignatedAs	A의 문화유산 정보는 B이다	Any	Heritage
sameAs	A는 B와 동일하다	Record, Object	Record
hasType	A의 유형은 B이다	Any	Concept
hasPart	A는 부분 B가 있다	Any	Any
includes	A는 B를 포함한다	Concept, BuddhistCollection	Any
isRelatedTo	A는 B와 관련있다	Any	Any
isShownAt	A는 웹자원 B에 보인다	Any	WebResource
contains	A는 B에 수록되어 있다	BuddhistCollection	Record
hasContextualElement	A의 문맥요소는 B이다	Story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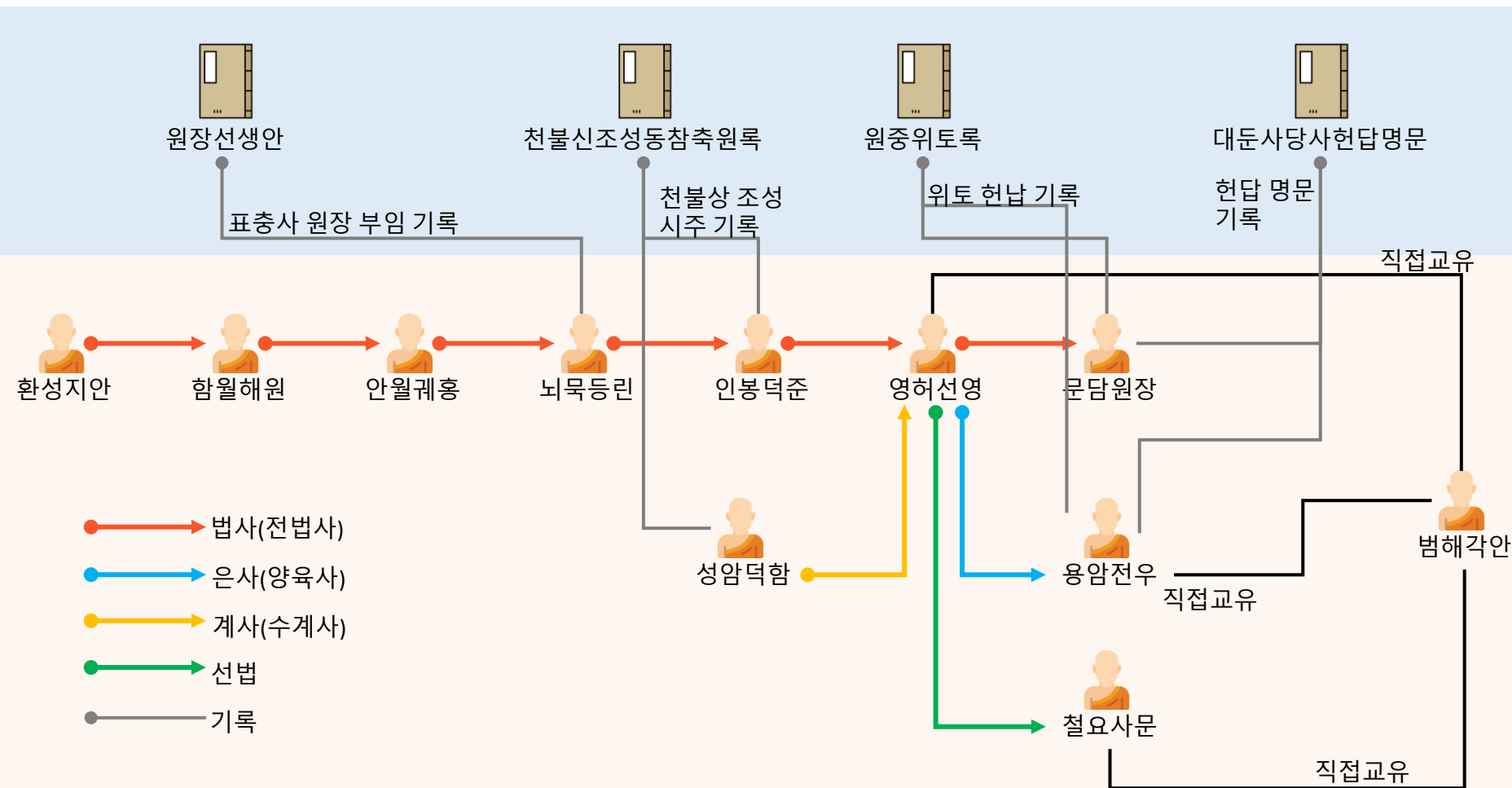
-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환경:**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환경 조성:
    - 시맨틱 데이터의 링크 데이터 보완
    - 스토리 데이터의 구현
- **Factual Data 편찬 내용:**
  - 설계한 온톨로지를 토대로(4장), 『범해선사유고』에 관한 지식의 탐색과 자원의 수집 내용(3장)을 시맨틱 데이터로 편찬
  - 『범해선사유고』 수록 시문의 사실과 문맥에 관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실과 문맥에 관한 지식의 정보망을 토대로, 온라인 상의 유관 자료에 나아갈 수 있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구축
-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대흥사 승탑원의 승려들 (법맥/사찰/금석문/문인)
  -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법맥/유람/다양한 불교문헌/시주)
  - 범해 각안의 제주 유람 (유람/불교 외 자료)
  - 정약용 가문과 대흥사 승려들의 대를 이어 온 교유 (유불/다양한 시문)
  - 불가의 옛 이야기를 읽는 방편 (경전/고사/공안집)

##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德寺, 지금의 남양주 흥국사)의 용암 전우(庸庵典愚)를 방문하고 나서 지은 시가 한 편 수록되어 있다.

『동사열전』의 「자서전」에는 구체적으로 1875년 범해가 금강산을 유람하러 가는 길에 용암 화상의 산방(山房)에서 이들을 머물렀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

용암은 대흥사 12중사 중 한 명인 함월 해원(涵月海源, 1691-1770년)의 문손이다. 범해 각안과 용암 전우의 관계를 쫓아가면 함월 해원의 문손들이 대흥사와 맺고 있었던 구체적인 관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에피소드 목록

1	범해 각안이 유람에서 용암 전우를 만남
2	범해 각안이 유람에서 영허 선영을 만남
3	범해 각안과 철요 사문과의 인연
4	함월 해원 문손들의 법맥
5	뇌묵 등린의 표충사원장 역임
6	함월 해원 탐비의 대흥사 이견
7	성암 덕함과 인봉 덕준의 천불전 불상 시주
8	문담 원장과 용암 전우의 표충사 위토
9	문담 원장과 용암 전우의 헌답 명문

범해 각안이 기록한 함월 해원 문손들과의 교유: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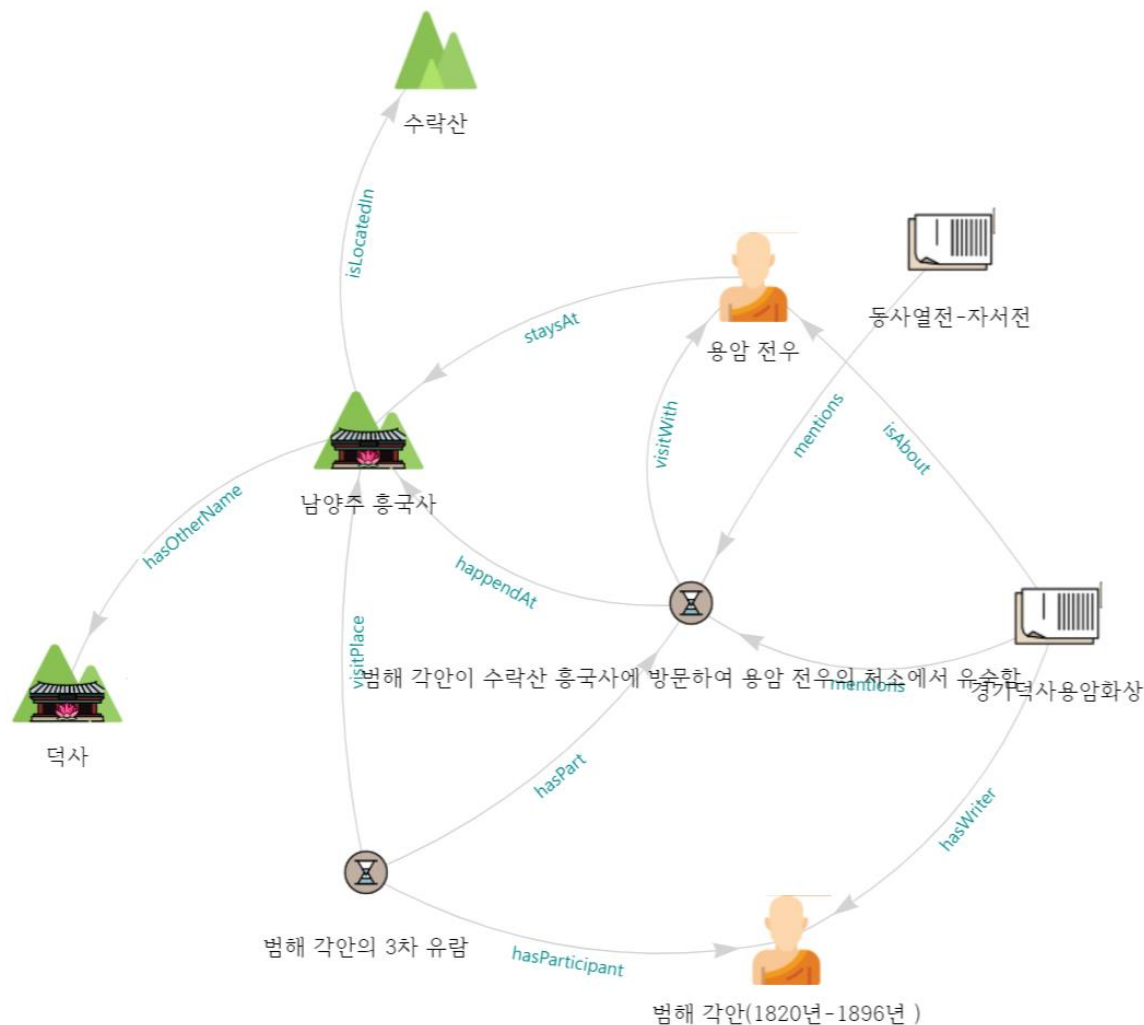
함월 해원 문손들의 법맥: 4

함월 해원 문손들의 대흥사 관련 활동: 5,6,7,8,9



##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1 범해 각안이 유람에서 용암 전우를 만남



-범해선사유고&gt;경기도 덕사의 용암 화상 → 용암 전우

경기도 덕사(德寺)의 용암 화상(廬庵和尚)

수락산 속의 흥국사로 / 水落山中興國寺

용암을 참배하려 남에서 왔다네 / 爲參廬老自南來

자비의 향기 장실에 가득하여 / 慈悲滿室熏餘地

천 리 길 나그네 두 눈이 뜨이네 / 千里行人兩眼開

-동사열전&gt;자서전 → 용암 전우

이튿날 남산에 올라가 장안長安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수락산 덕사德寺에 이르러 용암廬庵 스님의 산방山房에서 이틀 밤을 잤다.

##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 2 범해 각안이 유람에서 영허 선영을 만남



## -동사열전&gt;자서전 → 영허 선영

설봉산 석왕사釋王寺 내원암內院庵에 있는 영허 선영映虛善影 선사(의 지팡이를 멈추고 나를 밤을 잤다.

## -동사열전&gt;철요선백전

신미년(고종 8, 1871) 봄에 김 만호가 이진梨鎭 만호가 되어 부임하였다. 그가 부임할 때 스님은 그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스님은 그 문적文蹟(임금의 교지)을 가지고 나(梵海)를 찾아와서 숙식을 함께하며 이진으로 가서 진장鎭長을 만나곤 하였다. 그러다가 김 만호가 서울로 올라갈 때 스님도 곧바로 떠나 갔다. 그 뒤 5년이 지난 을해년(고종 12, 1875) 봄에 내가 석왕사로 가서 내원암의 영허映虛 노덕老德이 계신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조실로 있던 철요 스님을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 2천 리 밖에 떨어져 살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 만났으니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3 Episode-범해 각안과 철요 사문과의 인연



범해선사유고&gt;철요 스님에게 부치는 편지 → 철요 사문

철요(鐵鶴) 스님에게 부치는 편지

여러 해 동안 길이 막혀 있던 듯하였는데 두 스님께서 문득 오시니 비록 편지는 없어도 마주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로 여러 날 동안 스님의 생활이 때때로 무량한 수복을 누리시며 물이 동쪽으로 흘러들 듯 부처님께 귀의하고 정례하시는지요. 저는 흰머리만 가득하고 눈은 어지러워 책을 치우고 망연히 앉아만 있으며 지팡이 꽃아 놓고 걸기도 게을러져서 화광삼대火光三昧(다비)의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대는 연연한 천축 옛 난야의 주인으로 문답文潭 화상의 자취를 이어, 스승이 돌아가신 때에 진영을 봉안하고 향을 살라 삼님의 법계를 빛내니, 참으로 착한 일입니다. 비록 신물信物이 있다 하더라도 홍모鵝毛와 같아 이루기 어려운 형세이니 바란들 어찌하겠습니까. 이생에서 두 번 만났으나 세 번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금신무약산란산金身無藥錫蘭山의 계승을 잘 읊조려 수천 리 밖 동풍同風의 후계에 부응합니다. 다만 여류 스님의 말에 있으니 갖추지 못합니다. 밝게 살려 주십시오.

-동사열전>철요선백전

추사 김 참판金參判의 시집에 추사가 사문師文(철요)에게 증정한 절구시 한 수가 있었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五天竺在掌中間	다섯 천축국天竺國 손바닥 안에 있고
八水三峰往復還	팔수八水和 삼봉三峰을 오고 가네
莫把足跡傳祖印	관 밖에서 발 드러낸 것으로 조사의 심인心印 삼지 마시게
金身無善錫蘭山	부처님은 아무 탈 없이 석람산錫蘭山(스리랑카)에 계신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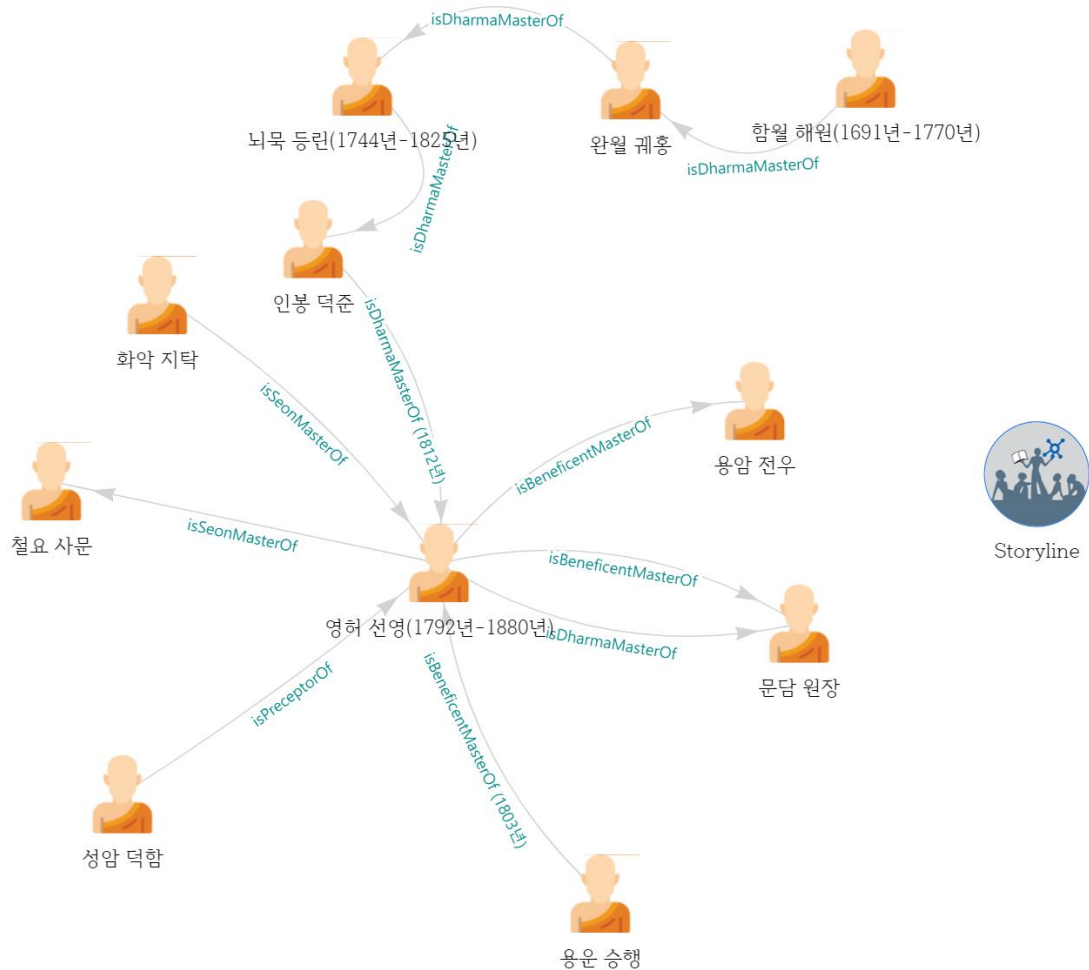
-동사열전>철요선백전

철요 스님이 나에게 절구 한 수를 지어 주기에 나도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주었다.

본시 동문인데 천 리 밖에 살고 있어  
고개 들어 북쪽 하늘 두우성斗牛星을 바라봤지  
한 번 만남도 다행인데 두 번씩이나 만났으니  
법담 마치자 산은 맑고 잡자리도 편안하네

##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 4 Episode-함월 해원 문손들의 법맥



청허계 편양파 5대손인 함월 해원 (범해 각안은 5대손 호암 체정의 문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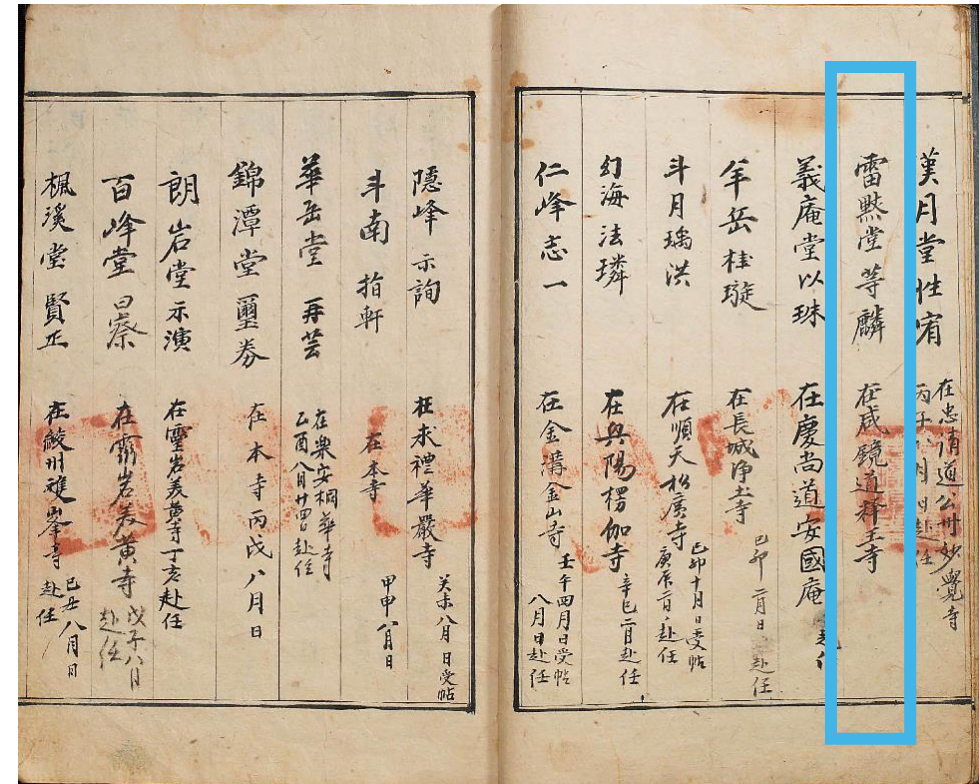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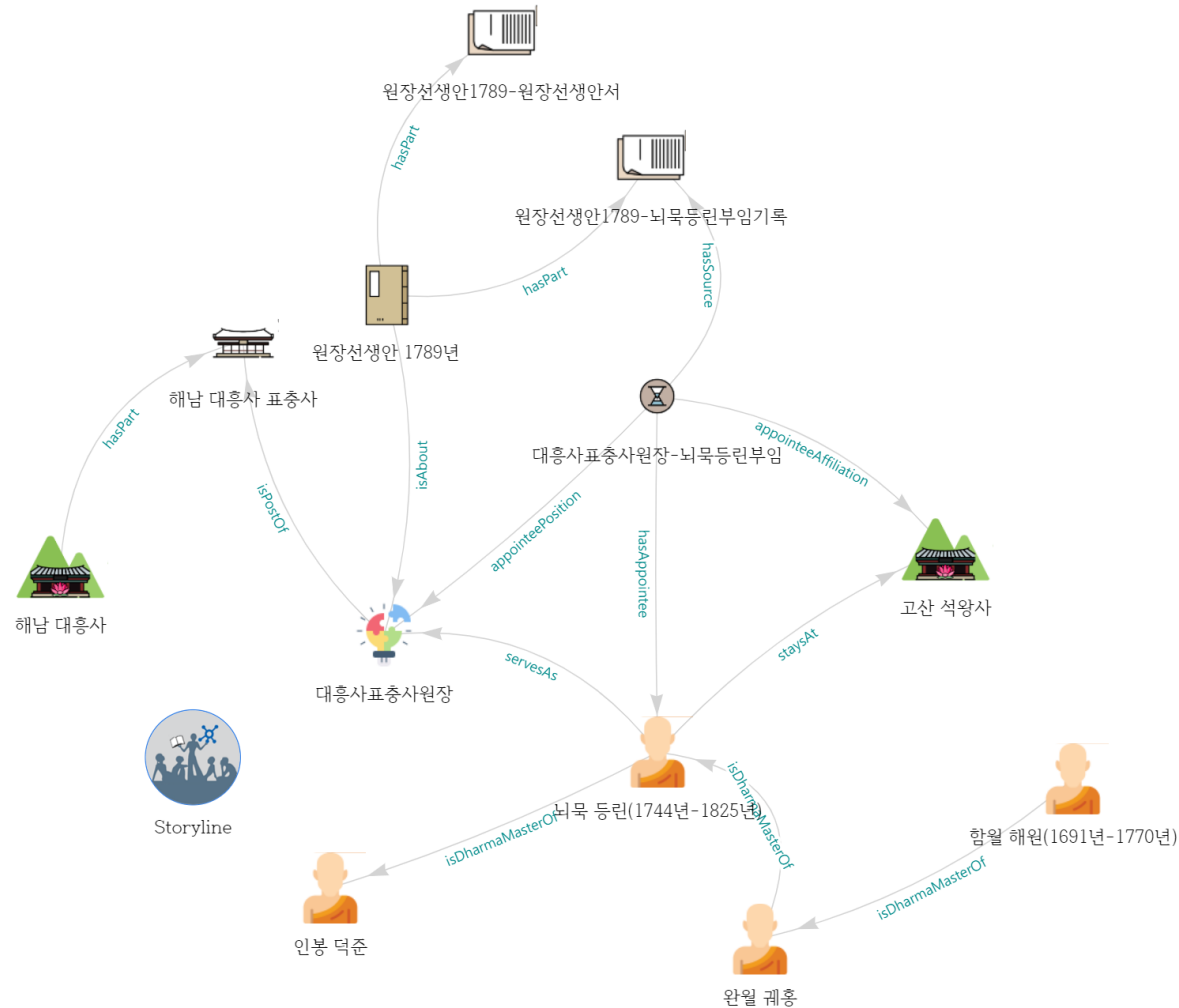
영허왈: “청허淸虛의 정맥正脈이요, 함월涵月의 문손門孫이요, 뇌묵雷默의 상족上足이신 인봉 화상의 문도들이다.”

법맥: 환성지안→함월해원→완월괘홍→뇌묵등린→인봉덕준→영허선영→문담원장



##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 5 뇌목 등린의 표충사원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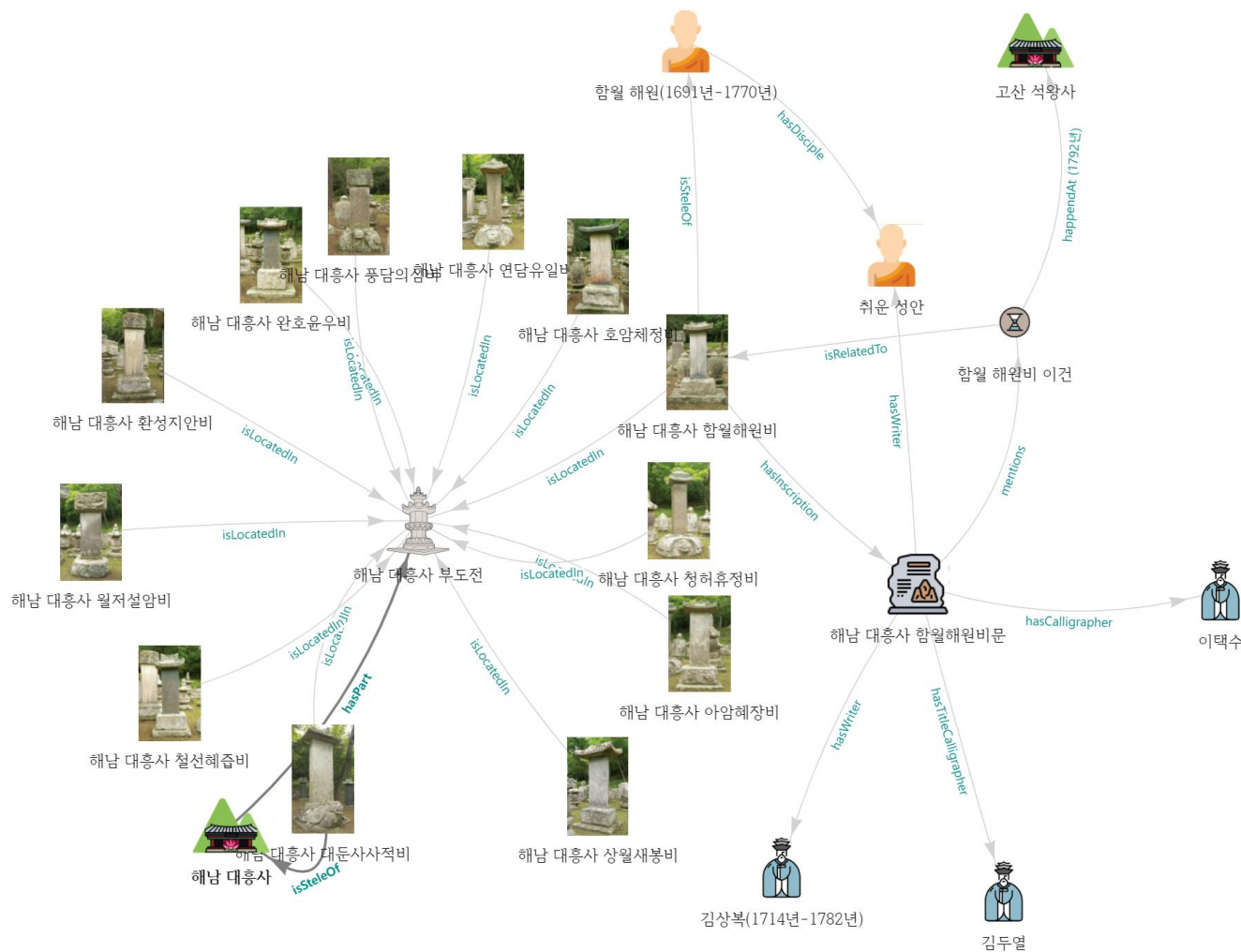


##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 대흥사(1789)

- 전임자(한월 성유) 부임일: 1816년 8월
- 뇌목등린 부임: 1817년 추정
- 후임자(의암 이주) 부임일: 미상
- 후임자(양악 계선) 부임일: 1819년 2월

##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 6 함월 해원 탐비의 대흥사 이견



함월 해원 탐비의 대흥사 이견 – 17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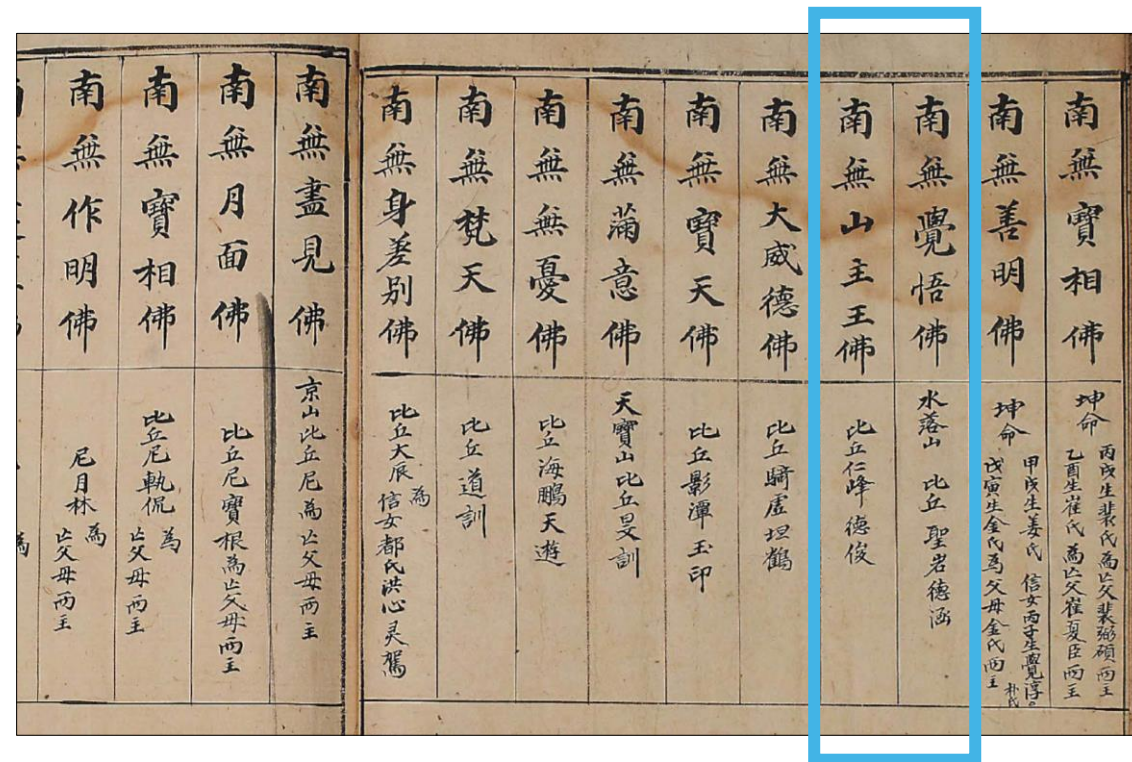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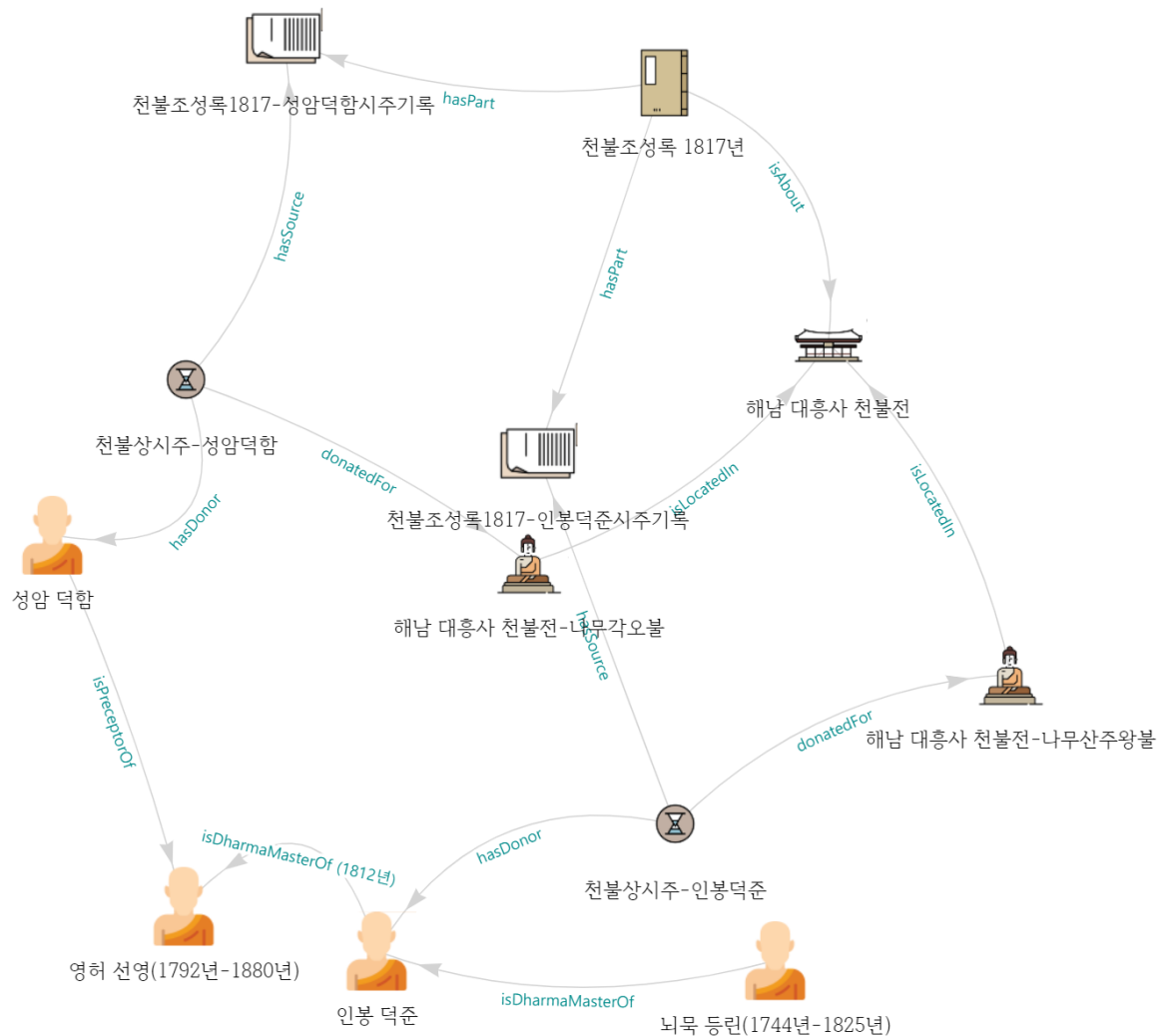
“임자오월일이건전라도해남대둔사”

壬子五月日移建全羅道海南大菴寺  
院長 維登領  
那昨將  
燭旻佑日 住持錦元  
善喆一境 三綱  
罕有平日 網  
日欣烜官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7 성암 덕함과 인봉 덕준의 천불전 불상 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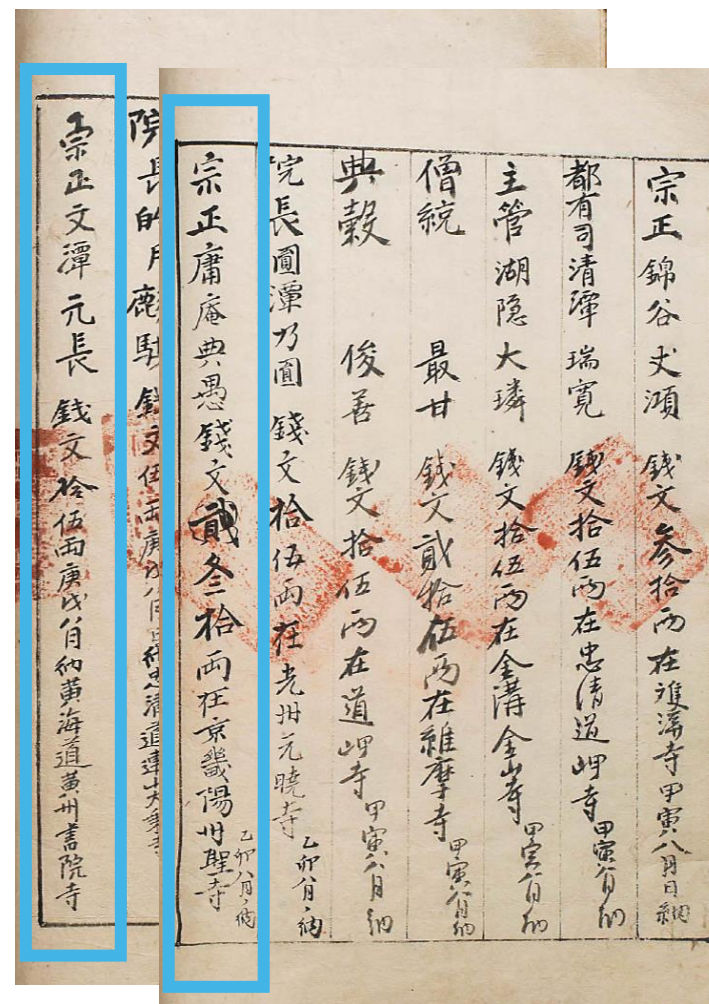
천불조성록(千佛造成錄) - 1817

나무각오불南無覺悟佛  
나무산주왕불南無山主王佛

수락산水落山 비구比丘 성암덕함聖岩德涵  
비구比丘 인봉덕준仁峰德俊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8 문담 원장과 용암 전우의 표충사 위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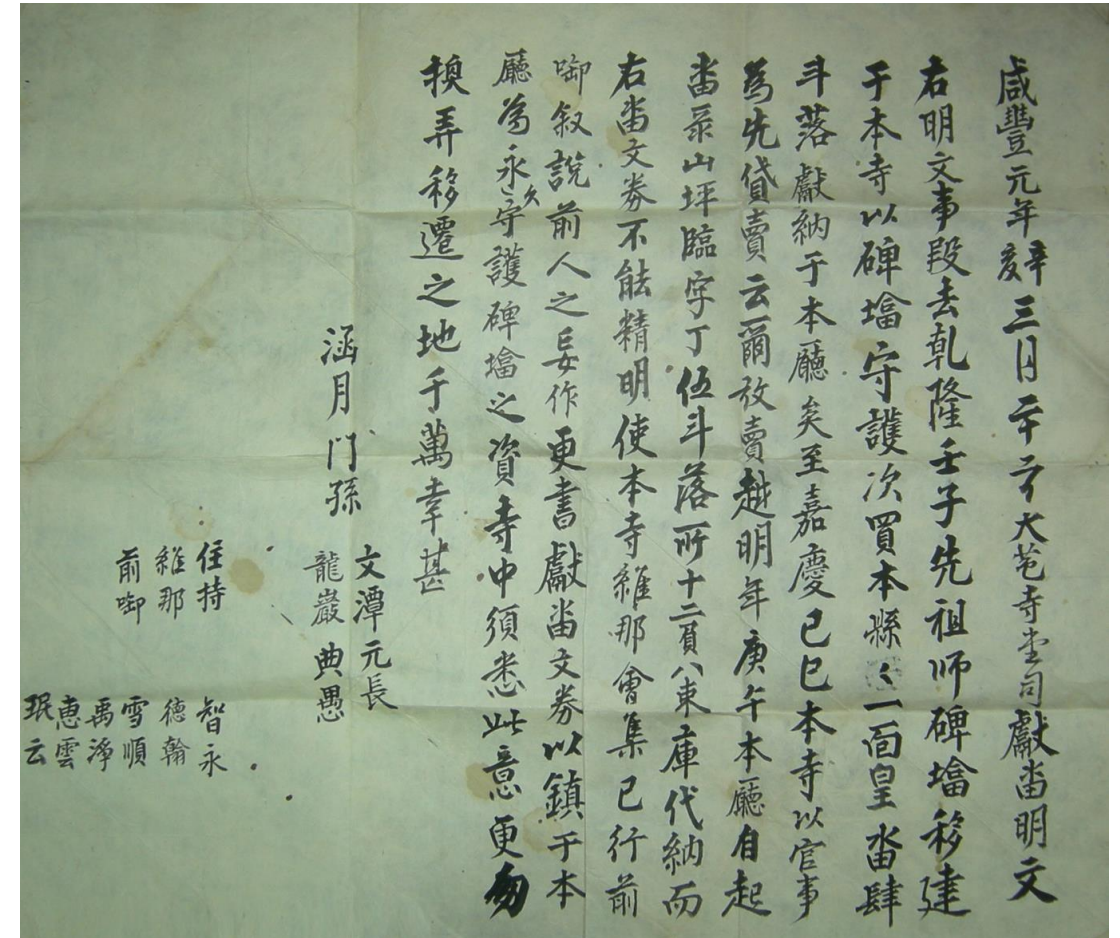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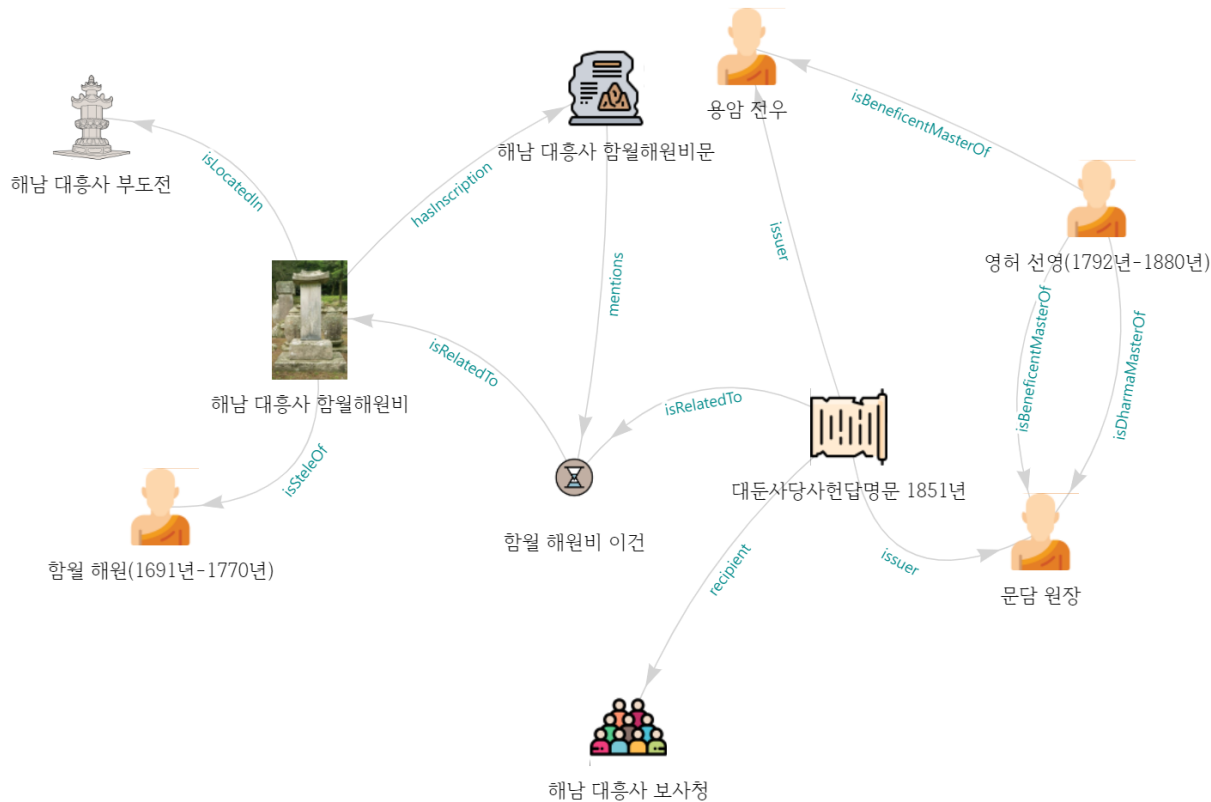
**위토원입록(位土願入錄) - 1789**  
- 표충원의 위토를 헌납받거나 매득한 내용을 기록한 책

중정宗正 문담원장文潭元長 전錢 문文 15냥兩, 경술년 8월 납입함. 황해도黃海道 황주黃州 서원사書院寺  
중정宗正 용암전우庸庵典愚 전錢 문文 20냥兩, 경기京畿 양주陽州 성사聖寺에 있다. 을묘년 8월 일 납입함



## Factual Data를 활용한 Story Data 편찬 내용 - 2)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에 유숙한 인연

9 문담 원장과 용암 전우의 헌답 명문



대둔사당사헌답명문(大菴寺堂司獻奮明文) - 대둔사(1851)

1792년 함월 해원의 탐비를 대흥사로 옮길 때 답 4마지기를 구입해서 보사청에 헌답했는데, 보사청에서 관가의 일 때문에 우선 처분하고(1809), 후에 다른 땅을 개간해서 대납했다고 함(1810).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전답을 헌납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